

# 화학제품, 12월 생산 1.9% 감소

## 통계청, 제조업 평균가동률 78% 불과 ... 2011년 재고 22% 폭증

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광공업생산지수가 3달째 하락했다.

통계청은 <2011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>에서 “2011년 12월 광공업생산이 1차금속, 음료 등이 부진한 영향으로 11월에 비해 0.9% 줄었고 전년동기대비 2.8% 증가했다”고 1월31일 발표했다.

생산은 비금속광물 1.3%, 컴퓨터 4.5% 증가한 반면, 음료 15.0%, 1차금속 2.3%, 화학제품 1.9% 감소했다.

전년동기대비로는 반도체 및 부품 12.5%, 자동차 10.7%, 금속가공 9.0% 등이 호조를 보였으나 기계장비 4.6%, 전기장비 5.7% 감소했다.

내수용 출하는 0.2% 감소했고 수출용 출하는 0.9% 증가했으며, 2010년에 비해서는 내수용 0.8%, 수출용 4.5% 개선됐다.

재고는 반도체 및 부품 8.4%, 기계장비 8.4% 등이 증가해 11월에 비해 2.8% 증가했으며, 2010년에 비해서는 21.5% 폭증을 나타냈다.

2011년 12월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11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합세를 기록했으나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7.6%에 불과해 11월에 비해 1.5%p 하락했다.

2011년 연간 기준으로는 반도체 및 부품 생산이 16.7%, 자동차 14.1%, 기계장비 7.4% 등 호조를 나타냈으나 전기장비 3.3%, 비금속광물 3.1% 감소했다.

광공업, 서비스업, 건설업, 공공행정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된 전산업생산은 11월에 비해 0.5% 증가했으며, 연간 전산업생산은 2010년에 비해 3.8% 늘었고 연간 제조업평균가동률은 81.2%로 2010년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1/31>